

日의원 3명 공항서 '입국금지'에 日정부 항의

# 한·일 '울릉도 방문' 외교 충돌

### 日 오늘 방위백서 발간... 양국 급속 냉각 불가피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한국행 강행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외교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일본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중의원의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 등 3명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발 김포공항행 전일본공수(ANA) 비행기 편으로 출국,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당초 일본 측에 통보한 대로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입국 심사대 도착 전 송환대기실로 이들을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의원들은 정부의 입국 불허 사유에 불만을 표시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대기실에 머무른 채 9시간 가까이 출국을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이들이 타고 온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으로 낮 12시40분 되돌려보낼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버티자 최대한 이른 시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였다. 외교통상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이들이 예약한 비행기표 변경

문제와 정부 입장 등을 볼 때 오후 8시10분 전일본공수(ANA) NH1166 편에 탑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대해(한국이 입국 금지로 대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 2005년 이후 독도 관련 기술을 그대로 답습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부공사 등을 불러 엄중한 항의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국회 독도특위 12일 개최, 독도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독도 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고강도 대응방안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교류와 동북아 정치·안보현안 협력, 한·중·일 협력사업,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방면에 걸쳐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입국시도 日의원 신도 요시타카(앞쪽) 자민당의원과 이나다 도모미(여성) 중의원(하위) 의원, 사토 마사히사(뒤쪽) 릉수염 나이) 참의원의원 등이 1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인 접근금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을 시도한 1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김포공항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중조기경보기 '피스아이' 한반도 뜬다

### 1호기 미서 어제 도착 내달 북한 등 전역 감시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기(일명 피스아이) E-737가 다음 달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임무에 본격 돌입한다. 방위사업청은 피스아이 1호기가 지난달 30일 미국 시애틀의 보잉사 공장에서 우리 공군 시험평가팀에 의한 현지 시험검사를 완료하고 출발해 1일 공해양과까지 도착했다고 밝혔다. 1호기는 운용 시범비행과 최종 수락검사 등을 거쳐 9월 초 공군에 인도되어 임무를 시작한다.

피스아이는 북한지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떠 있는 모든 물체를 완벽하게 탐지하는 항공기다. 공중에 떠

있는 아군 전투기에 지시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린다. 특히 이 항공기는 한반도 전역 공중과 해상의 1000여개 표적을 동시 탐지하고 360도 전방위 감시도 가능한 MESA(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이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는 달리 10초 이내 특정 목표지역만을 탐색할 수 있고 탐지거리는 370~500km에 이른다.

공중의 전투기나 헬기, 미사일과 해상 고속정, 호위함 등 각종 함정을 비롯해 특수전 병력을 산고 산악지역으로 지공 침투 비행하는 북한의 AN-2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스아이는 조종사 2명, 승무원 6~10명을 태우고 마하 0.78의 속력으로 9~12.5km 상공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길이 33.6m, 높이 12.57m, 폭 34.77m, 항속거리 6천670km, 최대 이륙중량 77t, 체공시간은 8시간이다. 대당 가격은 400억 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 美 부채상한 증액 협상 극적 타결

### 오바마 "디폴트 2일 앞두고 상·하원 합의"

### 2조1천억달러 늘려... 10년간 지출 1조달러 감축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국가 디폴트(부채상한 불이행) 시한을 이틀 앞두고 지난 3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국내지출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부채상한을 최소 2조1000억달러로 상향하고, 향후 10년간 2단계로 나눠 정부지출을 총 2조5000억달러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출 삭감에 가운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 규모는 즉각 시행키로 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만 35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직 중요한 표결절차가 남아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의회가 며칠 내에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존 보너 하원 의장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타결안은 모든 공화당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법정 한도는 14조2940억달러이나 지난 5월 16일 이미 이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상한을 증액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 "독도, 국제 이슈화하려는 정치 꼼수"

### 정치권·시민단체, 日의원 한국 입국 강행 성토

정치권은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시찰'을 위한 한국 입국을 강행한 데 대해 일제히 성토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영토 침략행위일 뿐더러 지난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광복절을 보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하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정부가

단호히 이들의 입국을 막은 건 잘못이다"며 "앞으로 일본 의원들이 이 같은 목적으로 불법입국을 할 때는 강력하게 규탄하거나 체포해 국내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 때문에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본다"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이며 일본 측의 성숙하고 현명한 처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중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독도에서 일일 초병을 하며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고시생,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3만6000명 VS 3만1000명

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시를 준비하는 여자가 남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시절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시·전문직' 분야를 준비한 고시생은 여자가 3만6000명으로 남자(3만1000명)보다 많았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2006년에는 남자 고시생이 3만9000명으로 여자 고시생(2만3000명)보다 1만6000명 많았으나 2009년에는 남자(3만8000명)와 여자(3만7000명)가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남자(4만6000명)와 여자(4만명) 모두 4만명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 2011 가을 단풍 미국 & 캐나다 여행상품 특가

**무비자! 세계인이 뽑은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시작해 토론토, 오타와(쑤드), 몬트리올, 퀘벡(퀘벡시)로 이어지는 800km의 단풍나뭇길 - 세계 최고의 감동과 노라마 메이플로드

미국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 - 뉴욕, 워싱턴, 보스턴, 나이아가라를 함께 둘러보는 2011 가을 최고의 단풍여행지 미국 동부 & 캐나다로 초대합니다.

**세계인이 뽑은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시작해 토론토, 오타와(쑤드), 몬트리올, 퀘벡(퀘벡시)로 이어지는 800km의 단풍나뭇길 - 세계 최고의 감동과 노라마 메이플로드

미국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 - 뉴욕, 워싱턴, 보스턴, 나이아가라를 함께 둘러보는 2011 가을 최고의 단풍여행지 미국 동부 & 캐나다로 초대합니다.

**미국 동부 + 캐나다 동부 일주 9일**

매주 수, 토요일 **특가 2,690,000원**

출발일 9월 24, 28 10월 8, 12, 15, 19, 26, 29, ...

**미국 서부 3대 캐년 + 동부(나이아가라) 일주 13일**

매주 수요일 **특가 3,290,000원**

출발일 9월 28 10월 12, 19, 26, ... 단체/단독 기타날짜 가능

**후원**

아시아나항공

**예약상담**

두암점	상무점	수완점	전대점	조대점	진월점	첨단점	충장점
267-8587	652-2974	574-1300	521-2177	227-8255	382-5353	233-2627	433-9796

서울시 중구 대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 6층 ● 서울시 중구청 동북동 1번지 1층 ● 영남보증보험 5955천만원가입 ● 2억원 여행보험 ● 금이상호텔(일부상품제외) ● 최정상호텔(10명이상)인솔자동행: 일부상품제외 ● 전일정 식사제공(내식포함) ● 교통편: 항공/버스/기차/선박 ● 여행보험센터 1588-8692 ●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변동 있음 ● 여행일정변경시 사전에 여행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가리보통 내의)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유류비, 공항이용료, 관광이용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 현지관광 입장료 등 포함 (단, 자유여행상품은 미적용되며, 금리변동에 따른 유류비, 금리변동 등에 변동 가능) ●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 상품 및 출발일에 따라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 비자비용 및 고액의 선택에 의한 인내금 봉사료는 선택관광 사항이며, 기사/가이드비용은 관광사행인,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